

“여수 관광산업 도약 MICE 육성 필요”

‘마이스 역할’ 포럼 성황리 마무리 시민단체·시민 등 180여명 참여 국제규모 컨벤션센터 필요성 제기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MICE(기업회의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열고 다양한 계층이 머리를 맞댔다.

여수시는 지난 1일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 지역 MICE 여수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MICE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정기명 여수시장, 이권철 전남관광재단대표이사, 김영규 여수시의회의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강용주 이사장을 비롯해 아름다운여수만행회,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여수MICE 서포터즈, 대학생, 공무원 등 180여명의 다양한 계층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기명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우리 여수는 관광의 양적 팽창을 넘어 마이스 산업과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으로 관광의 질적 전환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고 강조하고, “2026세계박람회를 성



지난 1일 열린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MICE의 역할’ 포럼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여수시 제공>

공 개최해 남해안 거점도시를 넘어 세계 속의 여수로 발돋움해 갈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르네상스만 속에 숨겨진 여수의 비밀’이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 교수들의 주제 발표가 3건에 걸쳐 진행됐다.

이어 남해안 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MICE의 역할이란 주제로 5명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국제 규격(2000석)의 컨벤션센터

필요성’ 등 지역 MICE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오갔다.

패널로 참여한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은 “섬과 바다를 주제로 비즈니스와 휴양을 연계한 여수만의 차별화된 MICE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남해안의 거점도시로서 국제회의의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사랑상품권 사용시 15% 적립 이벤트...전남 최초

연말 한시 5% 추가 15% 할인

광양시가 연말을 맞아 광양사랑상품권 사용 시 최대 15%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남 지역 최초로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인cent을 15%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기간 사용한 금액만 지원한다. 상품권 구매(충전)만 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연말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를 겨냥하고 광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활발하게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광양사랑상품권을 기프트형 카드에서 충전형 카드로 변경하고 1인당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용 금액의 10%를 사용 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광양시는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5%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 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농

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정용균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깜짝 이벤트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사랑상품권 애용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윈윈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상품권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행복한 곡성군민, 깨끗한 혈관 만들어요

9일까지 26개 경로당 순회

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곡성군이 오는 9일까지 보건의료원에서 ‘혈관이 더 깨끗한 곡성’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가 총 26개 경로당을 선정하고 각 1회씩 ‘혈관이 더 깨끗한 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신체 계측·혈압·당뇨 측정 후 투약 관리, 만성질환 보건교육과 혈액순환을 위한 림프순환 운동으로 구성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한랭질환 공통 예방수칙을 교육한다. 강추위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노약자들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평소보다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고른 영양분 섭취하기,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하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장



갑·목도리 착용하기 등이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주기적인 혈압, 혈당 측정을 통해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 교육을 통해 군민 건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미세단백노 검사와 사망병원을 연계해 합병증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61-360-8983, 59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박동희 기자 pj@kwangju.co.kr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제휴 할인처 모집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가 이달 30일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제휴 할인처를 모집한다.

2023정원박람회 연계 여행 권역의 관광시설과 제휴를 통해 상호 입장료와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관람객을 추가 유치하고 연관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광주·전라권역과 경남권역의 유료 관광시설과 타 박람회이다.

제휴 혜택은 2023정원박람회 일반 보통 성인권 입장료 2000원 정액 할인을 제공하며, 제휴처의 경우 각 시설에서 제한한 할인 혜택이 있다. 현장에서 상호 입장권 또는 이용권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직위는 박람회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홍보물에 제휴 할인시설을 안내하고 박람회장 내 홍보 배너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제휴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읍 우산사거리~장거리 ‘숲속 맨발로’ 조성

보성군이 보성을 우산사거리~장거리 교차로 2.1km 구간 미세먼지 차단숲 중앙부에 송이자갈과 마사토를 혼합, 다짐하는 공법을 통해 ‘숲속 맨발로(路)’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약취 유입과 미세먼지 차단숲 목적으로 조성한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은 도시숲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산책코스로도 사랑받고 있다.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은 녹차밭보성향토시장·철로변공한지를 이용한 주민참여숲, 동운천 생태하천공원 등 보성읍 내 산책코스를 연결하는 순환형 산책길이다.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숲은 2022년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보성군 보성을 우산사거리~장거리 교차로 2.1km 구간 미세먼지 차단숲 중앙부에 조성된 숲속 맨발로. <보성군 제공>

선종한 보성군 산림조성계장은 “지역민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층 더 높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법을 구상·반영, 도시 숲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문화행사로 꾸린 보성군 월례초회

학생 오케스트라 연주 선보여

경직된 조직문화 탈피 소통 확대

보성군이 특별한 월례초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보성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22년 12월 마지막 월례초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초회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직원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월례초회의 이름은 보람찬 직장생활·성공적인 보성을 위한 매월 열리는 전 직원 소통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보성 달도임’이라는 명칭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보성 달도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시간을 옮겼으며, 채동선유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해 15분가량의 식전 공연을 선보였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군청 발전 유공 표창, 직원 자유발언, 훈시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기존의 월례초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행사가 진행되어 유연하고 활기찬 직원 정기모임이었다는 평가가 따랐다. 특히 직원 자유발언에 대한 소감 전달을 통해 훈시 말씀 위주의 일방향적 월례 초회를 벗어나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월례 초회는 근엄하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직원 정기모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보성 달도임으로 바뀐 월례초회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 월례초회에서 지역 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다.

여수시, 내년부터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계약자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여수시가 계약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계약(회계)업무 담당자와 사업부서 감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중이 없는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직무교육(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약업무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중이로 된 계약서류를 제출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여수시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전자정부시스템인 행안부 ‘문서24’를 활용해 내부 재정시스템(e호조)을 연계하고, 입찰부터 계약, 검수, 대

금지급까지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문서24’를 통해 착수신고서, 기성(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 받아 종이 없는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비롯해 제1관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읍면동에서 시행된다.

시스템 사용 안정을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계약방식을 병행하며,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비대면 계약업무 서비스 제공으로 계약 상대방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종이서류의 보관이 필요 없어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여서동 새마을회·부녀회 사랑의 반찬 나눔

여수시 여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유종율)와 부녀회(회장 고은숙)가 겨울철을 맞아 복지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사랑의 반찬’을 전달했다.

회원들은 지난 28일 직접 야채를 다듬고 한우 불고기를 양념에 재워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특히 한파가 밀려오는 겨울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전달해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해마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고은숙 부녀회장은 “반찬을 전달하며 만난 모든 이웃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무척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회를 전했다.



장명은 여서동장은 “얼마 전 김장김치 나눔에 이어 이번 사랑의 반찬 나눔까지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여서동이 한결 따뜻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사람 향기 나는 여서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서동 새마을부녀회는 여름철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닭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0.35% 지원

공인중개사협 광양시지회와 협약

광양시가 2023년부터 중개보수 계약금액의 0.35%를 지원한다.

광양시는 지난 2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순선 부시장을 비롯한 광양시 관계자들과 광양시지회 조연관 지회장과 황학범·이돈훈 부지회장, 김진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도시개발사업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중개 알선에 따른 계약체결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계약금액 0.35%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협약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계약금액이 8억 원일 경우 240만 원이며, 60억원 이상일 경우 2100만 원이다.

한편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중 성황·도이지구는 100%, 광영·의암지구는 98%, 와우지구는 97%가 분양됐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